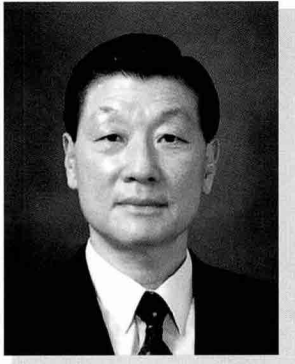


## ■ 신년사



# 2004년 새해를 맞이하며...

甲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장병과 산업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방위산업체 임직원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9.11 테러 사태 이후 벌어진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국제 안보환경이 종교, 자원, 민족 등 초국가적이며 비군사적 마찰요인들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전쟁양상이 첨단정보 하이테크 전쟁으로 변화되면서 세계의 열강은 군사력 건설을 양적 대군주의에서 질적 정예주의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살펴보면,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중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 현대화를, 러시아는 강국 위상회복을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력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화해 협력과 민간외교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다자간의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또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에 우려되는 국방력에 대한 국민정서의 불안감은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선진국방 건설을 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화해와 협력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 방산업체는 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 및 제도의 경직성 등으로 침체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방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기반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이와 같은 안보환경의 변화를 직시하고 우리의 방위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새해 목표를 「방산제도 개선 및 해외 협력활동 강화」로 정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무기의 해외의존도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방산업계가 첨단기술과 지식 기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술인력의 육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와 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방산업계의 경영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체 스스로도 경영합리화를 통해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야 할 것이며, 전략적 수출상품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수출시장 확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방위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회는 이를 위해서 업계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발전과 월간<국방과 기술> 발행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새해에도 국방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한국 방위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월 1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金相駿